



Evangelism
Explosion
Japan

일반사단법인 EE JAPAN 계간지 (연 3회 / 4월·8월·12월 발행)

2026

8

Vol.16

가서 전하라

평신도 전도자의 발굴·육성·배가를 위하여

본지는 일본어 원본을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것입니다.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EE를 사랑하는 이유

Mika Ueno

RCI 미나미오사카 복음교회 교인
Blessed 주식회사 대표이사
EE Japan 이사



1. 부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모교회인 미나미오사카 복음교회의 Masakazu Fukuno 목사님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부흥이 온다”고 정말 뜨겁고 굳게 믿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때 살아 있잖아! 어머니! 큰일이네!”(간사이 사투리라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부흥이 오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뭐, 언젠가는 오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때부터 미지근했던 제 마음이 단번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든 생각은 “정말로 부흥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수많은 영적 갇힌아기를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그리스도인 인구는 1%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이 충동원된다 해도 한 사람이 100명 가까운 사람을 길러야 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EE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마다 EE가 얼마나 훌륭한지 뜨겁게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2. EE 프로그램의 훌륭함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5년 6월에 EE를 수강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지도자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EE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제가 신뢰하는 선배 자매

M 씨를 어느 국제적인 집회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개인전도 클래스가 시작되니 꼭 수강해 보세요”라고 권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도를 좋아했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뭔가 부족한데~”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부터 아이 친구 엄마인 S 씨에게서 EE의 OJT(현장실습)에 대한 훌륭한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서, 망설임 없이 수강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 곧 I 씨라는 함께 배울 친구도 주셔서, 집에서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 걸리는 길을 예습과 복습을 하며 기쁘게 다녔습니다. 매주 “빨리 다음 강의를 듣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대부분 Zoom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예전처럼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국의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EE는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다듬어져 온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잘 짜여 있어서, 성경을 모르는 분에게도 제대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순서도 매우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EE Japan 대표이신 Tomoyoshi Yamanaka 목사님이 직접 번역하셔서, 일본인에게도 잘 전달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은 감정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분이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EE는 일본인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EE 복음제시를 들으신 분들에게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가장 알기 쉬웠어요!”,

“복음을 확실히 이해했으니 세례를 받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수강생 중에는 EE 교재로 복음의 기초를 배우다가 “저,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EE에는 ‘배가’라는 정말 훌륭한 ‘구조’가 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의 일입니다. 교회에 오신 M 씨는 제가 전한 EE 복음제시를 통해 그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M 씨는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EE를 수강하셨습니다. 그 M 씨를 지도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전에 제가 지도했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신 H 씨였습니다. 그 후 M 씨도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친 사람이 가르치고, 또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가르치고…… 제 손을 떠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E는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E가 말하는 ‘배가’의 구조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70명에게 EE를 지도했고, OJT(현장실습) 코치로서도 많은 OJT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약 20명의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교 졸업생분들을 지도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EE는 교재만 있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어, EE 훈련에,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서 직접 가르치기 위한 지도자 자격 과정에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3. OJT(현장실습)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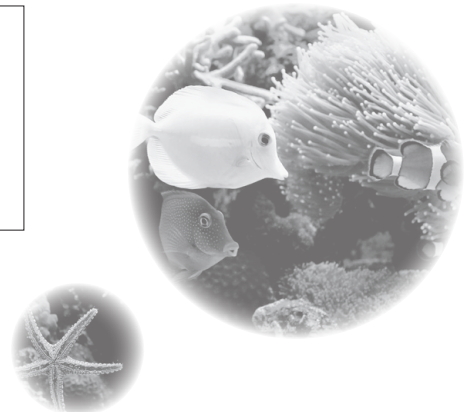
OJT란 ‘On-The-Job Training’의 약자로, 실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는 현장실습을 말합니다. EE를 졸업하려면 교재 학습과 더불어 5회 이상의 OJT를 경험해야 합니다. 곧 강의로 배우면서 실제 전도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와 많이 닮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는 여기입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타 보고, 뒤에서 잡아 주고, 조금씩 손을 놓아 주어야 비로소 혼자 탈 수 있게 됩니다. OJT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OJT 코치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수강생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사’로 성장해 갑니다.

암기가 서투른 분도, 일본어가 어려운 외국인도, 80세가 넘으신 분도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5회의 OJT이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을 실제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큰 감동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 온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친한 친구 등 가까운 분이 구원받아 수강생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로 가득 찹니다.

저는 지금까지 EE 복음제시를 통해 개인적으로 159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128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EE를 배우기 전에도 전도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분은 정말 적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를 제게 차례차례 보내 주시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에스겔 2장 1절에는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도저히 나로서는 해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일어서서 말씀을 받고 응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전하는 사람’, 나아가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오늘의 결심이 실제의 한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QR 코드가 쓰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간증 Testimony

~ 졸업생·재학생들의 생생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

Nobuaki Nagata (일본장로교회 오유미노 그리스도교회 도케 채플 담당목사)

저는 EE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누면 좋을지 배웠습니다. 많은 예화를 곁들인 배움을 통해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어회화 클래스 등을 열고 있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기 쉽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을 개인적으로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EE를 배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개인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분과는 지속적인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 준비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어서 조금 어색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여쭙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시는 불신자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기회를 보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EE를 배우면 불신자에게도,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불신자와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데 EE는 매우 유익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이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37-38)

Chikayo Tahara (일본장로교회 스즈카 그리스도교회 교인)**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인생에 대한 소망도 없이 허덕이던 10대의 마지막 해에 저는 ‘성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세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뜨거워, 지금까지 만나는 수백 명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제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해 주셨는지를 전해 왔습니다. 또 저는 프랜차이즈 학원을 경영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업’이나 ‘성탄극’ 등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마음은 좀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해, 두 분만이 세례의 복을 받으셨을 뿐입니다(주님의 약속대로 남편을 제외한 가족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만). 이런 나날을 지나며 저는 예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70대에 들어서 인생도 후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관련 책을 읽고, 신학교 청강생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등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원 일, 96세 아버지의 간병, 가족 뒷바라지 등 하루의 일과가 너무 번잡하고 바빠서, 집중해서 공부하려 해도 그 길은 험했고, 기력으로나 체력으로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마침 ‘스즈카 그리스도교회’에 오신 Yamanaka 목사님 부부를 통해 ‘EE’ 훈련에 대해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인지요! 저는 이 훈련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전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치우친,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야말

로 “하나님께서 제 정수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으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것은 열정만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조적인 설명’과,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 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훈련 기간 중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20년 넘게 다니면서도 ‘생장의 집’이라는 신흥종교에서도 계속 배우고 계신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EE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망설였지만, 그분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EE 진단 질문의 답을 스스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실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목사님께 달려가 “지금까지 줄곧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제 Tahara 씨가 등을 떠밀어 주셔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목사님과 공부한 뒤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EE Japan의 훈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이 사역을 세워 주신 Yamanaka 목사님 부부와 스테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이 더욱 더 쓰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12월)

칼럼

Column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서 사는 법EE 창설자 **Dr. D. James Kennedy**

기독교는 믿어야 할 신앙인 동시에 살아 내야 할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좋은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그분께 나아와 거저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인격도, 도덕도, 경건도, 지위도, 행위도,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낳는 믿음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그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디도서 3:5).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려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의 집에 태어난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을 기쁘시게 하고 가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왕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두 가지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선을 충분히 행하거나 일련의 규칙대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정교한 목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로마서 3:28). 정반대의 오류는 반율법주의(‘율법’을 뜻하는 헬라어 ‘노모스’에서 온 말)입니다. 일단 구속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자기에게 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는 빨간불을 그대로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 그러나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고 묻고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로마서 3:31).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 차를 살 때마다 달려 오는 자동차 설명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설명서는 타이어 공기압과 오일, 냉매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어떤 운전자가 “이런 ‘해라, 하지 마라’는 마음에 안 들어” 하며 설명서를 내던지고 오일 넣기를 거부한다면, 엔진은 결국 인적 드문 길에서 멈춰 서고 말 것입니다. 설명서는 사람을 속박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줄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주인이 누리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언젠가 작은 표지판 하나가 제 눈길

을 끌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될 때는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도덕법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로마서 8:15)는 말씀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 불리셨지만,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근한 “아빠”로 번역되는 아람어입니다. 어린 딸이 저를 “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단다. 하지만 온 세상에서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란다.” 하나님은, 고아원에서 어린 조니를 자기 가족으로 입양한 존스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니는 새롭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이제 그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지 만 염소는 몰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종의 마지못한, 침울하고 원망 섞인 무뚝뚝한 섬김이 아니라, 자녀의 자원하는 기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해야만 합니까?”가 아니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한 대로입니다.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시편 147:11).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 우리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 한가운데서 걸어갑시다.

【출전】 D. James Kennedy 저 Delighting God(Servant Publications, 1993) ‘서문’에서 발췌·편집. 한국어는 영문 원고에서 번역했으며, 성경은 개역개정판을 인용했습니다.



伝道

10년 후의 풍경

EE Japan 대표 **Tomoyoshi Yamanaka**

만일 여러분이 ‘개인전도를 할 수 있는 성도를 해마다 적어도 한 명 세운다’는 것을 목표로, EE 훈련, 특히 OJT를 인내하며 계속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10년 동안 지속한다고 합시다.

첫해의 전도자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두 사람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하면 그다음 해에는 네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한 사람씩 계속 세워 갈 수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10년 후에 512명의 전도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이런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강자를 고를 수 없고, 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중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 환경이나 지역성 등 여러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이 사역을 계속한 10년과 계속하지 않은 10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가령 결과가 그 1%에 그쳤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10년 후, 적어도 ‘5명’의, 헌신적이고 열정이 넘치며 개인전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헌신자가 됩니다.

주어진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여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온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양육’이라는 사역을 통해, 모두 몇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요? 상당한 수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5명’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그것은 그리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태복음 28:19)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E 수업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 대상자의 표면적인 반응만 보고 자신의 전도와 제자 양육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제자 양육의 효과는 대상자에게서 ‘영적 손자’가 태어나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영적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기능하면서 성숙과 재생산을 계속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EE 13주 클리닉 교재 [일 본어판] 99쪽)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서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양육받았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양육한다면, 여러분은 든든한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동역자도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 연쇄가 이어진다면…… 시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여호수아 23:10).

‘1년에 한 제자’는 결코 높은 허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맺는 열매는 막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내하며 이것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이 보게 될 10년 후의 풍경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E Japan은 여러분이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JT 코치는 언제든지 달려 갑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요한복음 15:16) 하기 위해, EE Japan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지역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Information

안 내

- ① **【중요】 2026년 가을학기 온라인 13주 클리닉**
 2026년 8월 31일(월) 개강 예정! 8월 31일 수업은 ‘도입/오리엔테이션’이므로, EE 사역이나 훈련에 관심 있는 분은 이날에 한해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Zoom 주소 등 자세한 정보는 EE Japan 홈페이지(eejapan.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메일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info@eejapan.com

- ② **OJT 자원봉사자 모집 중!**
 OJT란 수강생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현장실습입니다. 현재 수강생의 연습을 위해 ‘들어 주는 상대’가 되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새싹들’을 키우는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오른쪽 QR코드로 해 주십시오.



- ③ **매주 수요일 20:30~ EE 기도회 [Zoom]**
 EE Japan 이사장 Yuko Takahashi 목사님이 인도하는 Zoom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EE 사역, 관련 교회, 일본의 부흥, 세계 평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시간)
 《Zoom 미팅 정보》
 미팅 ID: 883 9235 5160
 패스코드: 771672



- ④ **알고 계셨습니까?**
 EE Japan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훈련 수강료 납부, 교재와 서적 구입, EE Japan 헌금에 꼭 활용해 주십시오. EE Japan 홈페이지(eejapan.com)에서 ‘支払・献金’(결제·헌금)을 클릭해 주십시오.

발행: EE Japan

대표: Tomoyoshi Yamanaka 편집책임자: Tomoko Yamanaka (편집장)
 이사장: Yuko Takahashi (단립 교토 인터내셔널 처치 Kyoto International Church 담임목사)
 이사: Tetsuya Dedachi (일본장로교회 오유미노 그리스도교회 목사)
 이사: Matthew Cummings (WEC 선교사)
 이사: Mika Ueno (RCI 미나미오사카 복음교회 교인)

발행일: 2026년 8월 15일 (여름호·한국어판)

발행 빈도: 계간 (봄호·여름호·겨울호)

〈편집·발행〉 EE Japan 사무국

〒616-8163 京都市右京区太秦西峰岡町27-10 (일본)

TEL 090-2038-1634 / E-mail: info@eejapan.com / Web: www.eejapan.com

인쇄·제본·레이아웃: (종교법인) New Life Ministries 신생선교단

한국어판은 주로 일본어판에서 번역했으며, 성경은 개역개정판을 인용했습니다. EE는 Evangelism Explosion(전도폭발)의 약칭입니다.

〈헌금 송금처〉

● 京都銀行 帷子ノ辻支店 (교토은행 가타비라노쓰지 지점)

계좌번호: 보통 3699909

예금주: 一般社団法人エバンゲリズムエクспロージョンジャパン

● ゆうちょ銀行 (유초은행)

대체계좌(振替口座): 00960-8-195432

예금주: 日本爆発伝道協会

(동봉한 용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보고**① **Messiah Mission Int'l. Ministry (필리핀인 교회)**

4월 12일, 고베에 있

는 필리핀인 교회 MMIM에서 EE 필리핀이 주최한 클리닉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목



회자를 잃은 아픔이 있는 교회가 전도의 열정으로 넘치는 모습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당일 한 일본인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② **Tokyo Living Water Christian Church, Singapore S-Word Evangelical Free Church**

5월 5일, 도쿄 고토구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서 두 명의 지도자가 EE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이처럼 일본에 있는 외국인 교회에서도 EE가 힘 있게 쓰임 받아 복음 선교 사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③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

있는 패밀리처치 히로에 채플(일본성약그리스도교단)에서 ‘개인전도 워크숍’이 6월 13일과 14일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EE의 주된 훈련 도구인 ‘13주 클리닉’의 미니 버전입니다. 참



가하신 분들은 매우 열심히 배우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워크숍 마지막에는 실제로 방문 약속을 잡아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보냄 받기를 기대합니다.

④ **7월 12일(주일)에는 EE를**

통해 힘 있게 전도와 제자 양육에 힘쓰고 계신 분들을 만나러 고베 바이블 펠로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도 큰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E의 목적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배가되도록 개인전도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고베 바이블 펠로십 교회에 더욱 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